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창궐하는 독서일기

전문적인 독서 저술집단 등장 알려줘...
인터넷 정보습득 환경이 독서론 부추겨

독서론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출간된 독서론은 책읽기를 전문으로 하는 독서전문가들이 쓰고 있다. 이는 독서를 주제로 글을 쓰는 집단이 등장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전반적인 독서기피 사회풍토와 사이버공간에 흩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섭취하기 위한 기초적 대안으로 독서법이 관심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책읽기에 관한 책’은 희소 가치가 있다. 그만큼 수가 적고 그래서 책 목록을 손에 꼽을 정도다. 《행복한 책읽기》(김 현, 문학과지성사), 《장정일의 독서일기(전5권)》(장정일, 범우사), 《내 스무살을 울린 책》(김윤식 외, 작가정신) 등 잘 알려진 문인들의 ‘독서일기’가 있다. 독서개론서의 고전 《독서의 기술》(모티머 J. 애들러 외, 민병덕, 범우사), 문인·학자들의 독서체험과 철학을 담은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고 은 외, 민음사)도 떠오른다. 여기에 《독서의 역사》(알베르토 망구엘, 정명진, 세종서적)를 추가하면 지난 10년간 나온 독서론의 목록이 대체로 완성된다. 그런데 어느 쪽이 특이한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한해 동안 다섯권의 독서론이 출간됐다. 독서론은 아니지만 중세 유럽의 사본문화에서 서적 제작의 명장(名匠) 윌리엄 모리스까지 책의 아름다움을 문화사적 시각에서 다룬 《아름다운 지상의 책 한권》(이광주, 한길사)도 올 초에 소개된 바 있다. 과거에 비해 독서론이 점차 출판시장에서 독자적인 장르로 자리잡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출판을 전제로 한 글쓰기 등장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올해 출간된 목록을 살펴보자. 도서평론가 이권우가 펴낸 도서비평집 《어느 게으름뱅이의 책읽기》(한

국출판마케팅연구소)가 올 하반기에 나왔다. 일본 최고의 장서가·독서가·저술가인 다치바나 다카시의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이연숙, 청어람미디어), 미국의 작가이자 명 칼럼니스트인 에너 킨들린의 《독서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바꾸었나?》(임옥희, 예코리브르), 출판평론가 한기호의 출판시론집 《디지털 시대의 책 만들기》(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가 연이어 나왔다. 여기에 《독서 교육 길라잡이》(책으로 따뜻하게 세상만드는교사들모임(이하 ‘책따세’), 푸른숲)가 청소년 독서길잡이로 추가된다. 《베스트셀러와 작가들》(최을영 외, 인물과사상사)의 경우도 조앤 K. 롤링, 이운기, 최인호 등 베스트셀러 소설가들을 중심으로 책과 저자를 병행해서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있어 독서론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책 날개를 보면 이 책들이 이전의 독서일기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전의 책들이 문인들의 잠학다식한 독서기를 추보식으로 기록하는 데 그쳤다면 올해 나온 책들은 독서가 ‘일’이고 ‘밥벌이’인 독서전문가들이 쓰고 있다. 문인들의 책읽기가 출판물 전제로 하지 않은 지극히 사적인 글쓰기인데 비해, 독서전문가들은 출판을 전제로 쓴 객관성을 담보한 글들이다. 이는 맥락을 좀더 넓혀서 볼 때 ‘독서’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전문적인 저술 집단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징후로

도 읽힌다.

독자들이 책을 구매하는 동기가 저자의 지명도와 그에 따른 사적인 호기심에서, 다분히 독서라는 문화행위 그 자체로 옮겨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에서는 유명하지만 국내 독자들에게는 일면식이 없는 다카시의 책도 출간 2개월만에 3만부나 팔린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목적으로서의 독서풍속 보여줘

당연히 저자들의 책 읽는 목적, 방법, 글쓰는 태도에서도 차이점이 속출한다. 가령 예전의 김 현이나 장정일이 읽은 책에 대한 간단한 논평을 붙여나간 반면, 위의 독서전문가들은 해당 도서를 긴 호흡을 두고 정밀하게 탐사한다. 일반적인 서평집과도 물론 차이가 있다.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책에 따라 달라지는 독서법이나 마음가짐에 대한 설명도 비중 있게 다루이기 때문이다. 가령 이권우의 경우 겹쳐읽기와 깊이읽기라는 다분히 비평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다카시는 훑어보기, 다독과 속독, 주석 읽기 등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한기호는 책의 외연, 즉 책의 주제가 시대를 반영하는지, 따라가는지 아니면 앞서가는지 등 책을 그 사회의 만화경으로 간주하고 접근하며 이런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책따세, 한기호, 다카시가 특정 주제에 대한 찾아읽기 혹은 글을

쓰기 위해 읽는 실용적인 독서라면, 이권우와 퀴들런의 경우는 책읽기 자체가 읽기의 목적이다. 유년기부터 작가가 되고 나서도 오직 책을 읽어 세상을 가늠하고 꿈꿔왔던 지적 섭렵기를 고백한 퀴들런의 책은 전통적인 독서광의 성장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독서의 위기가 독서론 부추겨

그런데, 여기서 또 한가지 문제삼을 것이 있다. 왜 옛날 사람들은 굳이 쓰지 않은 독서일기를 이 시대 지식인들은 써야 하는가. 이는 독서가 '일상'이 아닌 '행사'인 시대, 책 읽는 것이 당연시됐던 사회와 책읽기를 기피하는 사회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즉, 독서와 책과 출판의 위기가 독서과정의 가치화를 촉진시키는 무의식적 기제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이들 독서론이 '책'을 읽는 것이 곧 종이문화를 향유하는 것임을 중간중간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물론 옛 선인들도 독서일기를 썼지만,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일종의 자기 약속과 그것의 확인이라는 수행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즈음 출간된 독서일기는 다분히 책읽기

를 환기시키기 위한 보여주기 성격이 짙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독서론을 개진하고자 하는 필자들에게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장기적으로' 지면을 할애해주는 서평전문지의 확대·정착도 독서론 출간을 가능케한 요소다.

또 독서의 위기는 독서를 통해 자신을 세운 주체의 위기다. 독서론은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아날로그적 질서에 종속된 개인들의 '자기의 테크놀로지'인 셈이다. 독서가 얼마나 한 사람을 내부적으로는 충실하게, 외부적으로는 거창하고 풍성하게 만드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다. 지금까지 스무권을 넘어서는 책을 저술한 지은이는 하나의 주제론을 쓰기 위해 최소 30~40권을 읽어치운다고 한다. 그것도 직접 사서 보기 때문에 일명 '고양이빌딩'이라 불리는 그의 서재(사실 건물이지만)에는 수만권의 책이 가득하다. 무식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지적 편력은 그러나 뜯어보면 상징적인 면이 있다. 바로 '체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다카시는 책을 선택하고 구입하고 읽고 정리하고 인용하며, 보관·관리하고 감상하는 등 책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규칙과 패턴을 부여한다. 독서가 반복되면서 무식해 보였던 '양'은 체계를 갖

추면서 '질'로 전화하고 그것은 그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뚜렷한 차별점을 형성한다. 단순히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읽고 많이 알아서다.

사실 독서론이 쏟아져나오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이 체계의 문제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독서 교육 방법 등이 담겨 있는 《독서 교육 길라잡이》는 독서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표면적으로 볼 때 물론 그렇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사라져가는 독서의 규칙을 붙들어매려는 의도를 내장하고 있다. 즉 독서는 책을 읽는 것이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이라는 체계를 읽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가 책이라는 체계를 이탈해서 존재하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독서의 규칙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저것 마구 섭취하는, 자유롭지만 비선형적이고 읽기보다는 보는 것으로 지식을 축적해가는 오늘날의 양상에서 책을 통한 단계적인 지적 성장을 예전만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래서 과거에는 책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았던 독서론이 디지털시대에 다시 책으로 부활해 신세대를 괴롭히는지도 모른다. —강성민 기자

한 다독가의 독서법

《디지털 시대의 책 만들기》 펴낸 한기호 소장

《디지털 시대의 책 만들기》를 펴낸 한기호 소장(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은 철저히 마케팅 관점에서 모든 책을 읽어낸다. 시대의 표정을 보면, 시대가 어떤 책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음에도 출판인들이 이를 몰라서 답답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나치게 전공분야의 책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책을 대부분 '읽는다'. 이런 열렬한 읽기를 통해 그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7권의 저서를 낼 수 있었다. 그 독서 비결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언급하는 책들은 다 읽고 쓰나?

“대상이 되는 책들은 다 읽는 편이다. 하지만 발췌독서를 한다. 어떤 책은 차레를 보고, 어떤 책은 색인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는다. 마케팅 관련서는 하루에 여섯권도 본다. 일단 책을 펼쳐 새로운 용어나 저작이 있는지 살펴본다. 만약 내가 다 아는 용어들만 나와 있다면 그 책은 나에게 필요 없는 책이다.”



언제부터 책을 그렇게 읽기 시작했나?

“출판사에 입사하고부터다. 영업사원으로 일했는데, 지방에 8박9일씩 출장을 다닐 때면 이동 중에 늘 책을 읽었다. 그때 기본적으로 빨리 읽는 습관이 들었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책들도 많이 읽었는데, 그 책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내 독서의 목적이었다. 그렇다고 베스트셀러만 읽은 것은 아니다.”

트렌드를 어떻게 정의하나? 같은 주제의 책들을 묶는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건 결과론적인 트렌드에 불과하다. 내가 책을 통해 읽는 것은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그 책이 차지하는 위치다. 가령 한국은 지난 몇 년간 '한국전쟁'에 해당할 만큼 급격한 변화를 세번이나 겪었다. 인터넷, IMF, 문민정부의 탄생이 그것이다. 인터넷은 독자를 유저로 변화시켰고, 구제금융은 경제경영서의 체질을 개선시켰다. 진정한 트렌드는 이런 시대의 거시적인 변화를 미리 읽어내는 것이다.”

독서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는 정보의 부족, 은폐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을 가려내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의미 있는 정보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고,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 독서론이 필요한지도 모른다.”